

전남에 햇빛소득마을 500개 조성…에너지복지 확대 속도

정부 확산 정책 대응…내년 공모 준비 본격화

주민참여형 태양광으로 소득·재생에너지 동시 확대

전남도가 2030년까지 도내 전역에 '햇빛 소득마을' 500개소를 조성해 주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산과 에너지복지 실현에 나선다.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정책에 발맞춰 시·군과의 공동 대응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도내 22개 시·군과 영상회의를 열고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내년 초 예정된 정부 공모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

까지 전국 25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도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100개소씩 총 5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공모 준비 단계부터 선정 이후 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과 공동으로 에너지정책 과정을 단장으로 하는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시·군별 후보지 발굴, 주민 설명회 및 설팅, 사업계획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미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1차 수요조사를 통해 150여 개 희망 마을을 발굴했으며, 2차 추가 조사를 거쳐 총 500여 개소의 후보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1월부터는 희망 마을을 대상으로 부지 적정성 검토와 사업성 분석 등 현장 중심의 컨설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 공모가 내년 2월 예정된 만큼, 도는 공모 대응 역량을 집중해 최대한 많은 마을이 선정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계통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도 병행된

다. 전남 전역이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어 있어 계통 연계에 제약이 있지만, 주민참여형 태양광 등 공공·공의 목적 발전사업에 대해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 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을 활용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지금 조달 구조 개선도 과제로 제시됐다.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정부의 장기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하지만, 미을공동체 중심의 협동조합은 담보 확

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출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전남도는 대출 담보 요건 완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정연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해 재생에너지 확산에 직접 참여하는 지역주도형 사업"이라며 "마을공동체가 유후 자원을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4일 서구 풍암동에 마련된 청소년자율공간 '다같이 즐겁당(堂)' 개소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 풍암동에 청소년자율공간 '다같이 즐겁당' 문 열어

216㎡ 규모…북카페·VR존·노래방 등 여가활동 시설 갖춰 북구·광산구·남구 이어 네번째…내년 계립동 등 3곳 추가

광주 서구에 청소년자율공간 '다같이 즐겁당'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어갔다.

이 곳은 서구의 첫 청소년자율공간으로, 지난해 문을 연 북구 임동, 광산구 비

광산구, 남구에 이어 서구에 네 번째로 청소년자율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구 풍암동에 청소년자율공간 '다같이 즐겁당(堂)'을 마련, 전날 개소식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공간은 청소년이 무료로 쉬고, 공부하고, 게임까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전용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졌다.

다. 풍암동 한 아파트 관리동 3층 216㎡ 면적에 청소년 전용 라운지·북카페·노래방·포토부스·가상현실(VR) 존, 게임존 등을 갖춰 다양한 체험과 여가활동을 제공한다.

청소년자율공간은 청소년이 주체가 돼 공간 구성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해당 공간이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청소년 주도 정책 실현의 플랫폼이자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에 동구 계립동, 북구 동립동, 광산구 흑석동에 3개 소가 추가 개소·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역 간 청소년 활동 격차를 줄이고, 생활권 중심의 청소년 전용공간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름처럼 다 같이 즐거운 서구 청소년 자율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쉬고, 즐겁게 생활하며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AI시대 광주문화예술 혁신 방향 모색' 포럼

민형배 의원, 28일 오전 7시 조선대 입석홀 3층 세미나실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사진)은 오는 28일 오전 7시 조선대학 교 입석홀 3층 세미나실에서 광주문화예술 혁신포럼 준비위원회와 조선대학교 과학기술융합학과와 공동으로 'AI시대, 광주문화예술 혁신 포럼'을 연다.

'광주문화예술의 생산과 향유, 그리고 산업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AI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광주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산업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계, 연구자,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전득연 전남대 명예교수(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가 '문화도시 광주의 성찰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 최종일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가 'AI 시대, 광주문화산업의 활용 찾기'를 주제로 발제한다.



열린토론 세션에서 는 흥행원 작가의 사회로, 분야별 토론과 참석자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콘텐

츠 분야 고미아 위치스 대표(광주창작콘

텐츠산업협회 회장) △문화예술 분야 박

진현 광주일보 국장 △인문도시 분야 이

동순 조선대 교수 △공연예술 분야 최영화

호남대 교수 △시각예술 분야 백종옥

생태미술연구소 소장 △월드뮤직축제 분

야 장용석 독립기획자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분야 정성구 도시문화집단CS 박사

가 참석한다.

민형배 의원은 "AI와 4차 산업혁명 시

대를 맞아 광주 문화예술이 새로운 도약

을 준비할 때"라며 "현장 예술가, 연구자, 기획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실

효성 있는 문화 정책과 입법 과제를 도출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광일 부의장, 도시가스 사각지대 해소 촉구

여수 미공급 지역 대책 필요



니다"며 "율촌면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11.3%에 불과하고, 여수시 전체 보급률 역시 91.6%로 인근 목포·광양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산면, 율촌면, 화정면, 회양면, 남면 등 도서·읍면 지역에는 여전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한 곳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은 "농촌과 도서 지역의 난방비 부담은 도시보다 훨씬 크고, 이는 에너지 문제와 같은 생활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가스난방은 사치가 아니라 기본적인 주거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난방을 한 번 더 켜기 전에 비용부터 계산해야 하고, 연료가 떨어질까 불안 속에서 하루를 버텨야 하는 지역이 여수 곳곳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지난 8월 돌산읍 우두리 주민들과 도시가스 공급 문제를 놓고 간담회를 열어 사실을 언급하며 "여수시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90%를 넘지만, 돌산 우두리 단독주택 지역의 보급률은 36%에 그쳤다"며 "같은 여수 안에서도 난방 여건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시민 체감 적극행정 성과 빛났다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 발생 당시 신속한 피해조사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낸 사례와 도로 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페어스콘을 재활용해 환경보호·예산절감·민원감소 성과를 거둔 사례가 하반기 광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는 최근 시정에서 회의를 열고, 하반기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 성과를 심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시민과 부서 주체로 추천을 통해 접수된 9건 중 실제 겸종과 예산심사를 거쳐 5건이 본선에 올라,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순위를 정했다.

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특별재난지역 선포·페어스콘 재활용사례 등

위(우대등급)가 결정됐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광주시 주도적 후우피해 조사를 통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견인과 복구 및 예방 대책 수립

리(자연재난과 박승현 주무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 조사와 차지구 긴급지원반 운영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대규모 국비 확보로 지방재정 부담을 줄였으며 신속 복구와 침수 예방 등 지속할 수 있는 재난 예방 대책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우수사례인 △페어스콘 재활용 활성화로 환경보호·예산절감·민원감소·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종합건설본부 김진수 주무관)는 도로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페어스콘을 단순 폐기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우·무상 공급체계를 도입한 것 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연간 수억 원의 폐기물 처리 예산화에 기여하다(광주경제자유구역청, 서지민 주무관)가 각각 선정됐다.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유치' 사례는 전국 국비로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문화기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대 1 맞춤 상담과 비용 감면 방안을 도입해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인 점이 성과로 인정됐다.

'인공지능(AI) 행정혁신' 사례는 민간의 우수 인공지능(AI) 기술과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연계해 청사 출입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행정혁신 종합계획을 수립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높인 점이 평가됐다.

'산업단지 규제 완화' 사례는 입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리기본계획의 단서조항을 개선함으로써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 활성화에 기여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 비상대비훈련 돋보여…'대통령 표창'

위기관리·통합방위태세 역량 인정…국가 평가서 우수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비상대비훈련(을지연습)' 평가에서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최고등급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2025년 을지연습'에 대한 종합평가의 결과이다. 을지연습은 국가 위기 상황을 가정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대표적 비상대비훈련이다.

광주시는 훈련 기간 위기관리 대응체계의 신속한 가동, 전시 전환 절차의 체계적 이행, 전면전 대비 태세 확립, 테러 및 복합재난 상황에 대한 실전형 대응훈련을 성과로 인정해 결과"라며 "앞으로도 실전 중심의 훈련과 철저한 대비를 통해 더욱 튼튼한 비상대비태세를 구축,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